



정교회주보

제2552호

2025년 11월 23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루가 제9주일

성 암필로히오스 주교
(제7조 • 조과 복음 2)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7조 부활 찬양송 82
- 성모 입당 축일 찬양송 204
- 성당 찬양송
- 성모 입당 축일 시기송 204
- 사도경 : 에페소 2,14~22 (봉)318
- 복음경 : 루가 12,16~21 129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사진 설명

포도주와 물

"**군**인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요한 19,34) 이 말씀을 재현하기 위해 '봉헌 예물 준비 의식'에서 어린양의 왼쪽 윗부분을 거룩한 창(聖槍)으로 찌른다.(주보 2518호 참조) 이어서 사제는 성작에 적정량의 포도주와 소량의 물을 넣는다.(나중에 성혈로 변화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샘물처럼 흘러나온 피와 물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 정화되고, 생명이 주어진다. 교부들의 해석에 따르면, 흘러나온 물과 피는 거룩한 세례와 감사의 성만찬을 의미한다. 즉,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 교회를 구성하는, 두 가지 근본적인 성사인 것이다.

포도주와 물이 섞여 하나가 되듯, 신자들은 성찬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을 의미한다. 성 키프리아노스는 "만약 포도주만 바친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없이 존재하게 되고, 만약 물만 바친다면 백성이 그리스도 없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가르치며 이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도주와 물이 섞여 분리할 수 없게 되듯이, 교회(신자들)는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결합한다.

한 가지 위대한 진리

조성암 암브로시오스 한국 대주교



성사도 바울로는 고린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느님의 성전이며, 하느님의 성령께서 자기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1고린토 3,16) 이 말씀을 통해 바울로 사도는 한 가지 위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떤 오해도 없도록 같은 서신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1고린토 6,19)

사도 바울로는 인간 전체, 즉 영혼과 몸이 온전히 하느님의 성전이며 성령의 거처임을 일깨우고자 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지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고유한 걸작품이며, 창조의 정점입니다.

무엇에 대해 먼저 경탄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체와 그 놀라운 기능들일까요? 과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연구해 왔지만, 인간과 인간의 신체에 관해 놀라운 사실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깊이 연구해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인간은 여전히 ‘미지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형상이며 하느님의 성전인 인간을 바라보며, 구약의 시편 기자는 오래전에 하느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께서 그를 천사

들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셨습니다.”(시편 8,5)

성 그레고리오스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작지만 큰 세계, 낮지만 높은 존재, 죽지만 영원한 존재, 땅에 속하나 하늘을 향한 존재”로서, 단지 신체의 능력과 신비로운 기능만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또한 “지성과 의지”라는 영적인 선물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모든 다른 생명체와 근본적으로 구별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을 더럽히면, 그는 ‘하느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상들의 신전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로 사도는 우리가 하느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면, ‘몸과 영혼을 조금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지켜서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하며 완전히 거룩한 사람’(2고린토 7,1)이 되자고 강조합니다.

이 ‘정화(카타르시스)’는 세례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반복되는 세례’, 곧 고백성사를 통해 지속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느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음의 행실을 버리게 하여”(히브리 9,14) 우리가 살아 있는 성전으로서 살아 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합니다.

내 삶의 여정

성 소프로니 수도사제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역임

하루하루의 생각들...

나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이여, 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로가 우리에게 충고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봅시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로마 12,18)

거의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당신을 불쾌하게 한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도 또한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질문이 당신을 범정으로 가지 않게 지켜줄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당신을 모욕한다면, 그때 당신 자신에게 다시 물어보십시오. “나 또한 다른 사람을 모욕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누군가 당신의 것을 훔쳐간다면, 또는 그가 어떤 방식으로 당신에게 해를 끼친다면, 마찬가지로 생각하십시오. “나도 전에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적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파괴하는 미움의 불과 악의(惡意)를 당신 안에서 소멸시켜 버릴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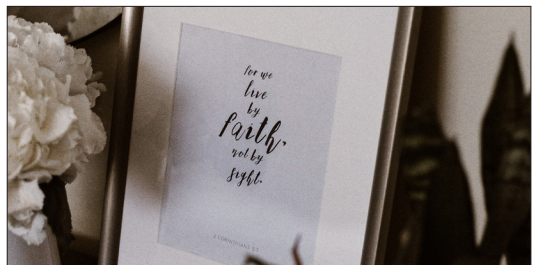


죽은 사람의 화장(火葬)

“당신은 왜 정교회가 죽은 사람을 화장하는 것에 반대하는지 묻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화장을 폭력적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죽은 말이나 개, 고양이, 원숭이 등을 화장합니까? 그런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죽은 동물들을 땅에 매장한다고 들었고,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 위에서 소위 만물의 영장(萬物之靈長)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은 몸에 대해 화장이라는 폭력적 방법을 써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점에서 보았을 때, 특별히 대도시에서는, 사람을 위한 화장장이 아니라 죽은 동물을 위한 소각장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사리에 맞지 않을까요?”

이 이교적이고 야만적인 풍습은 그리스도교 문명 덕분에 이천 년 전에 유럽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그것을 복원하길 바라는 사람은 문명화되고 개화된 것이나 근대적이고 새로운 것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아주 노쇠한 남녀를 죽이자는 생각을 곧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나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생각’을 퍼뜨릴 협회 같은 것을 만들자고 제안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정교회가 왜 죽은 이들의 화장에 동의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는, 다음에 더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예배 안내

* 11월 25일(화)

성 에카테리나 대순교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각 성당 예배는 문의 바랍니다.)



■ 양구 성당 철야예배

성 안드레아 첫 사도 축일 기념 철야예배가 11월 28일(금) 밤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진행됩니다.

차량 이용, 숙소 문의는 서울 성당 사무실로 해주십시오.



영성의 샵터

알림

■ 서울 성당 '성 니콜라스 미라의 대주교' 축일 일정

오는 11월 30일 주일부터 니콜라스 성인의 성화와 유해를 성당 중앙에 모시면서 축일이 시작됩니다. 각자의 일정을 미리 조정하여, 우리의 수호성인 니콜라스 성인의 축일 예배(5-6일)에 많이 참여하도록 합시다.

- 30일(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선물 증정

오찬 후, 성당 대청소 및 성탄 장식 (모두 참여)

- 5일(금) 오후 6시 30분 : 대만과, 아르토클라시아, 행렬, 만찬

- 6일(토) 오전 9시 : 축일조과, 성찬예배, 오찬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일본 사목 방문

지난 14일(금)-16일(주일)에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일본 오키나와 섬과 도쿄를 사목 방문했습니다. 토요일에 오키나와에서 조과와 성찬예배가 거행되었는데, 이는 세계 총대주교청 산하 일본 엑사르히아로서 오키나와에서 드린 최초의 성찬예배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다음날 주일에는 도쿄의 성 알반 성당에서 성찬예배가 거행되었습니다. 마태오 복음사가의 축일을 맞아 대주교는 주님께서 마태오 사도에게 하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교인들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기독교청년 에큐메니칼 아카데미

지난 11일(화), NCKK 청년위원회, EYCK(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KSCF(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가 같이 진행하는 ‘기독교청년 에큐메니칼 아카데미’가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열렸습니다. 개신교 청년들 10명이 성 니콜라스 대성당을 방문하여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로부터 정교회에 대한 소개와 안내를 받았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루는 모세 사부가 물을 가지러 스키티의 우물가로 갔다. 그곳에서 기도에 심취되어 있는 젊은 수도자 자카리아를 발견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감싸주시는 것을 보았다.